

## 한 국 사

문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곳곳에서 도적이 벌 때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 ①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② 신진 사대부가 대두하여 권문세족을 비판하였다.
- ③ 농민들은 전정, 군정, 환국 등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았다.
- ④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문 2.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오년 서울의 영군(營軍)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조와 선혜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5영의 병사들도 가꿈 결식을 하여 급기야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난을 일으키려 했다.

- ①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 ②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대의를 위해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 ③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다.
- ④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

문 3.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 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 연좌법을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 ①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 ②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 ③ 군국기무처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 ④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문 4. 밑줄 친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971년 7월,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벽돌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덤 입구를 열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놓여 있었으며, 백제는 물론 중국의 남조와 왜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 ① 중앙에는 22부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하였다.
- ②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 ③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 ④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문 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라.

- ①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하였다.
- ②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最古)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 ③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④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문 6. (가) ~ (라)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무신정변 발생	↑	↑	↑	↑	왕정 복구
최충헌 집권		↑	↑	↑	
최우 집권			↑	↑	
김준 집권			↑	↑	

- ① (가) -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② (나) - 망이·망소이 등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 ③ (다) -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 ④ (라) -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여 완성하였다.

문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 등의 역법을 참조하여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역법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었다. 내편은 수시력의 원리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며, 외편은 회회력(이슬람력)을 해설, 편찬한 것이다.

- ① 천체 관측 기구인 혼의, 간의 등을 제작하였다.
- ②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 ③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 ④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문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웃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 ①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 ②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 ③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白丁)이라고 하였다.
- ④ 선현 봉사(奉祀)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문 9.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ㄴ.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 정우회가 조직되었다.  
 ㄷ.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ㄹ.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① ㄱ→ㄴ→ㄹ→ㄷ  
 ② ㄱ→ㄹ→ㄷ→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ㄷ→ㄱ→ㄴ

문 10. 다음과 같이 주장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①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②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③ 경신환국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④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문 11. 밑줄 친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뽕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곡식을 담는 데 많이 이용된 이 토기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대표적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 등이다.

- 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②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었다.  
 ③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④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문 12.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 ①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②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③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④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문 13. 다음 ㉠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시기에 ㉠은(는)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차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 ①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②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③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④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문 14.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 을: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 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 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②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③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④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였다.

문 15.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문 16.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고구려 - 살수에서 수 양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ㄴ. 백제 -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ㄷ. 신라 -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ㄹ. 가야 -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① ㄴ → ㄷ → ㄹ → ㄱ  
 ② ㄴ → ㄹ → ㄷ → ㄱ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ㄷ → ㄹ → ㄱ → ㄴ

문 1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알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 ①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②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③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 18.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다.  
 ○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

- ① 국정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②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 사상을 선양하였다.  
 ③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④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문 19.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 사형수에 대한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 ① 신해통공을 단행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②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③ 봉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④ 환곡제를 면민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하였다.

문 2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불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